



[라이프]  
최대 80% 할인  
e커머스  
역대급 블프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불법체류자 된 외국인 유학생들 비자전환 등 정주 방안 마련해야

###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 매년 증가 지방대서 교육 후 B-7 변경 제안 유학생 유치 위해 제도 점검 필요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유학 비자가 불법체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유학생 인구와 그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유학생 수가 증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더불어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비학위)는 전년 대비 1만4611명(9.6%p) 증가한 16만6892명이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 1만445명 중 6974명이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남았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 자체는 2018년 1419명에서 2019년에 2883명, 2020년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이하 유학박람회)에서 외국인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4692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과 지방 인력 공급을 위해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지자들 중 일부를 B-7(숙련기능인력) 비자로 교육 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경영 교수는 “통계상 E-9 비자가 불법체류를 많이 하는 이유는 국내 업무와의 미스매칭 직업 교육, 혹은 기능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체로 연결돼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학생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E-9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방

안이 시행된다면 불법체류자 비율도 상당 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9 비자는 우리나라와 인력 공급 협정을 맺고 있는 16개국 대상 국가의 국민이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일부 분야(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락한 비자이다. 최대 4년 10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B-7 비자에 도전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중장기적으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라도 유학생 관리·보호 제도의 점검이 요구된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7억 상당 ‘불법 시서스’ 속여 판 일당 구속

서울시 민사단, 3명 구속·1명 불구속  
2년간 해외 유명 제품으로 속여 팔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 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와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그 자체로는 일반식품용으로 팔 수 없고, 기능성·안전성·제조방법이 입증된 원료형태로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 제조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조

차할 수 없는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팔아오다가 적발됐다. 판매된 불법 제품은 실제로는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요 성분이 극소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서스 분말 거래와 제품 유통 시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민사단은 덧붙였다.

이들 일당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전국 재래시장과 소매업자 등을 통해 판매한 불법 시서스 제품은 총 11만여명, 약 17억 원대에 달한다.

민사단 관계자는 “수입제품을 구매할 경우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교육공백 최소화”

교육청, 급식·돌봄 등 대응체제 구축  
급식 간소화, 파업대비 상황반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5일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21일 모든 학교에 안내했다. 일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약 2만여명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따른 교육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부교육감 직무대리(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재로 파업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이 정

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3일에도 11개 교육지원청 담당부서가 참여한 대책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학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 /신하는 기자

# 애국정신 기린다… 항일독립유산 관리 강화

### 서울시, 탑골공원 등 25개 문화재 대상 전문가 컨설팅 통해 원형 보존 안전 애국운동 현장 답사 프로그램 기획

서울시가 항일독립유산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탑골공원·보신각·태평공원 등 공원형 6개, 안창호·이준·손병희 묘소 포함 묘소형 10개, 경교장·심우장·앨버트 테일러 가옥 같은 건물형 9개를 합쳐 총 25개(국가지정 19개, 시지정 6개)의 항일독립 문화재가 자리해 있다.

시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253억원(98건)을 지원해 이들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수·복원·정비 사업을 벌여왔다. 작년에는 문화재 원형보존 및 안내·방범·방재시설 구축에 73억원(6건)을 투입했다.

시는 이달부터 2025년까지 ▲보수



보신각. /김현정 기자

정비 사전컨설팅으로 보수의 적시성과 전문성 제고 ▲문화재 접근성·안전성·관람편의를 높이는 관리 시설 확충 ▲항일독립유적지 추가 발굴 및 표석 설치 ▲문화재 정보 온·오프라인 제공 ▲항일독립 프로그램 진행을 뼈대로 하는 항일독립유산 정비 및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2일 “시민들이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며 항일독립유산을 쉽게 인식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우선 시는 문화재 보수 방식을 사후 정비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한옥가옥·양식 건물 등 각 문화재마다 보존 방식과 하자 관리 방안이 달라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 항일독립유산 원형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화재 원형 훼손 없이 공사가 가능한 여운형 묘소 등 독립 유공자 묘소 6곳에 장애인·노약자 참배객들을 위한 무장애 출입 시설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는 CCTV(천도교중앙대교단), 침입센서(승동교회), 소화기(안창호 묘소) 같은 방범·방재 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시는 3·1만세운동(탑골공원, 보신각터, 정동교회 등 현장)을 둘러보는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 ‘손흥민, 이번 월드컵 스타 될 것’  
▲ 벤투 감독, 그라운드에서 선 채 15분 연습… 화희찬은 실내운동 /사진 뉴시스

▲ PK 실축한 ‘득점 기계’… 월드컵서만 작아지는 레반도프스키  
▲ 룩데, FA 노진행도 품었다… 4년 총액 50억원



▲ ‘2연패 시동’ 프랑스, 호주에 4-1 완승… 지루, 앙리와 51골 타이  
▲ 사우디,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에 2-1 역전승… 최대이변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